

## 식탁으로 만드는 가정

오늘도 집에 가는 발걸음이 바쁘다. 이미 다 자라준 딸들과 이해심많은 남편으로 인해 저녁 식사준비로 목을 맬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마치 저녁 식사준비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양 특별한 저녁모임이나 행사가 없는 날은 상담일만 끝나면 총알같이 집으로 달려가기가 바쁘다. 내게 가족을 섬길 기회를 주는건지 마음이 너그러운 식구들은 내가 9 시전에만 도착하면 식사를 하지않고 기다려준다. 부지런히 옷만 갈아입고 손만 씻은채 반찬과 국, 찌개를 준비하는 나는 누가 쳐들어노는양 수선스럽다. 그리고는 식탁을 다 차린후 가장 중요한 30 초의 시간(이것을 위해 내가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분주했던 ),뜨거운 찌거나 , 국, 내가 만든일품요리하나와 밑반찬을 앞에 놓은 식구들의 얼굴표정과 분위기를 꼭 놓치지않는다. 군침을 넘기며 시장기를 쓸어내리며 감동하는 그얼굴, 바로 그얼굴들을 나는 선사받고 싶은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슴으로 받고 싶어하는 식구들의 사랑과 감사의 얼굴인것이다. 동시에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든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그것을 안다는듯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표정들로 표현하고 있는것을 나는 즐기고 있는것이다. 나는 이런식으로 매일 식탁을 통해 식구들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식구들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먹으며 이렇게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다. 내가 만든 일품의 된장찌게 , 미역국,그리고 딸들을 통해 대학친구들 ,교회식구들까지도 소문으로 이미 그맛을 인정받은 돼지 삼겹살을 먹자는 김치찌게등 내게는 손꼽을 만한 정도의 일품요리목록이 있다. 지금 나의 요리솜씨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요리에는 취미도 소질도 정말 없다, 부엌에 있는시간은 억울할정도로 아까와 하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다. 그러나 둘째를 시집보내고 그리고 이제 큰딸도 곧 결혼을 앞두고 막내만 대학에 있는 이미 장성한 딸들을 둔 엄마와 아내로서 26 년이란 긴 시간속에서 가정을 일구어오면서 가정은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아니며 가족 한사람한사람의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서로에게 전달되어 상대의 존재가치와 생명을 만들고

자라게 하며 그것으로 인해 어느것으로도 끊을수없는 끈끈하고 견고한 믿음과 사랑의 성과 울타리가 만들어지는것이 가정인것이다. 그래서 한사람도 이 가정의 울타리안에서는 낙오될수없고 상처받아 곤고해짐이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부딪힐수 밖에 없는 거센 비바람과 폭풍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함을 얻고 새살을 돋게 하는 생명의치유함이 있는곳이 가정이어야하는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지성소의역활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는 데는 여러가지면에서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가정의 식탁이라는 곳은 이러한 사랑을 먹고 먹이는 가장 중요한 곳임을 배웠기에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런 식탁을 베풀기위해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이런 사랑을 먹이려는 정성이 바로 오늘의 나의 음식솜씨를 만들어낸 원인이기도하다. 내가 자랄때 늘 할머니와 어른들께 들은 이야기가 있다. “먹는데 인심난다”그리고 아무리 소원한 사이라도 식사를 함께하면 그거리감이 어느새 좁혀지고 만다는 어른들의 이야기, 심지어는 예수님도 늘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함께하신것을 보면 함께먹는다 라는의미가 예사롭지는 않다는 의미를 전달 해주는 것 같다. 이민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라는 말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축이되어 삶의 형편과 모양새가 본질에서 어긋날수는 없을것같다. 아무리 식탁을 준비하는 시간이 빠듯할지라도 그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먹고 먹이는 이시간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많은 중요한것들을 한꺼번에 메우게 하는 묘한 비밀이 있기에 식탁을 준비하는 주부의 손길은 사랑을 준비하는 숭고한 손길인것이다. 어눌한 우리의 언어를 ,어색한 우리의 행동을 능가할수있는 사랑의 진솔한 표현이 바로 엄마의 식탁인것이다. 한번 이번 감사절의 식탁을 풍성한 사랑으로 정성으로 준비해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해보는 시작으로 가정의 식탁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보면 어떨까?